

# 복일고, 5년만에 무등기 탈환

### 화력 폭발 1회에만 4점...강호 충암고 9-6 꺾어

### 구원 송윤준 5피안타 2실점 호투... MVP 영예



‘막강 화력’의 복일고가 충암고를 제압하고 무등기 패권을 차지했다.

복일고가 2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 17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충암고와의 결승에서 장단 10안타를 몰아치며 9-6으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지난 2005년 에이스 유원상을 앞세워 진흥고를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복일고는 막강 화력에 힘입어 5년 만에 무등기 탈환에 성공했다.

1회부터 복일고 타선이 가동됐다.

2번 타자 신준섭이 유격수 강병의의 악수구로 2루까지 진투한 뒤 3번타자 오준혁의 2루타 때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올렸다. 홍성갑의 볼넷에 이어 최형종의 안타와 김인태의 3루타가 연속해서 터지면서 복일고가 1회에 4점을 쏟아냈다.

2회에도 복일고가 볼넷과 좌전안타로 무사 1-2루를 만들며 충암고 에이스 최현진을 강판시켰다. 복일고는 이어진 1사 2-3루에서 오준혁의 평볼로 1점을 보태며 5-0까지 앞서나갔다.

2회말 충암고의 반격이 시작됐다.

선두타자 김동환이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출루한 뒤 김경호의 2루타가 나오면서 무사 1-2루, 서훈환의 희생플라이로 충암고가

1점을 만회했다. 김병재의 적시타로 충암고가 두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5회초 복일고의 방망이가 다시 불을 뿜었다. 신준섭·오준혁의 연속안타로 만든 1사 2-3루에서 김준현의 2타점 적시타가 터졌다. 최형종의 2루타가 이어지면서 8-2까지 달아났다.

충암고가 ‘폭심’을 발휘하며 추격에 나섰지만 타선의 집중력이 아쉬웠다.

4-8로 뒤지고 있던 6회말 1사 만루의 찬스에서 김병재의 좌전안타가 나오면서 충암고의 대공세가 전개되는 듯했다. 하지만 강병의의 기습번트때 홈에 들어오던 3루주자가 아웃됐고, 2번 조영재마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충암고는 무사 만루의 기회에서 1점을 얻는데 그쳤다.

충암고는 8회 들어 이영복 감독이 불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하는 등 악재가 이어졌지만, 9회에 마지막 반격에 나섰다.

선두타자 조성진이 중전안타를 치고 나간 뒤 폭투로 3루까지 진투했다. 1사 3루에서 류지혁과 김동환의 연속 볼넷으로 만루까지 채웠다. 하지만 김경호와 장진일이 연속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경기는 9-6 복일고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윤형배에 이어 5회부터 마운드를 넘겨받은 복일고 투수 송윤준은 3이닝 5피안타 1사사구 2탈삼진 2실점의 투구로 결승전 승리 투수가 됐다.

3승째를 수확한 송윤준은 이번 대회에서 16이닝동안 9사사구 11탈삼진 5실점, 2.81의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 17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천안 복일고와 충암고와 결승에서 복일고 선수들이 충암고를 9-6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뒤 이정훈 감독을 헝가래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결정구 ‘포크볼’ 주효 3승 수확

### MVP 복일고 송윤준



“부상때문에 많은 준비를 못하면서 체력이 부족해 충암고를 상대로 어려운 승부를 했지만 타자들이 많이 도와줬다”며 “첫 등판때 밸런스가

“부상 복귀무대에서 얻은 최우수 선수의 영예라 더욱 기분 좋습니다. 믿어 주신 감독님, 좋은 경기를 펼쳐준 동료들과 우승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천안 복일고 좌완 송윤준(18·3년)이 서울 충암고와의 결승전에서 윤형배에 이어 중간계투로 나서 3이닝 5피안타 1사사구 2탈삼진 2실점의 투구로 팀의 우승을 지키며 대회 MVP에 선정됐다.

용마고와의 16강전 선발로 나서 첫 승을 올렸던 송윤준은 휘문고와 준결승에 이어 대회 결승무대에 올라 2.81의 방어율로 3승을 수확했다.

지난 3월 황금사자기 직후 어깨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송윤준은

종지 못했는데 감독님이 끝까지 믿어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송윤준은 올 시즌 투수로 전환한 ‘초보 투수’이지만 특유의 근성과 절묘한 변화구로 대회 수훈 선수가 됐다.

송윤준은 “대회전 감독님에게 포크볼을 전수 받았는데 결정구로 좋은 효과를 봤다. 직구 구속이 130km 중반대로 빠르지는 않지만 슬라이더와 포크볼을 이용해 상대 타선을 요리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

## 투수력 난조, 타격서 잘 풀어 줘

### 감독상 복일고 이정훈



이 감독은 “무등기 대회는 중앙고교야구대회보다 더 좋은 팀들이 많이 나와 매우 힘들었다”며 “내년에도 꼭 참가해 대회 2연패를 차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경기한 상대팀 충암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승의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천안 복일고 이정훈(47) 감독은 ‘악바리’라는 현역시절 명성답게 막강 화력과 화려한 투지를 앞세워 지난해 봉황기 대회 이후 1년여만에 전국대회 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이 감독은 “투수들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경기를 어렵게 끌어 갔지만 타격에서 잘 풀어줘 이길 수 있었다”며 “작전을 잘 수행해준 선수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번 우승으로 복일고는 지난 12회 무등기 대회 우승 이후 두 번째 우승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감독은 현역 시절 ‘악바리’ 명성을 떨쳤다. 71cm 73kg의 작은 체구에도 빙그레 이글스에 입단, 데뷔 첫해(1987년) 타율 3할3푼5리 4홈런 34타점 56득점 20도루로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쥔 뒤 2년 연속 타격 1위(1991, 1992년), 네 차례 외야수 부문 골든 글러브를 차지하며 국내 최고의 교타자로 군림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무등기 단체·개인상 수상자

- ▲우승=천안 복일고 ▲준우승=서울 충암고 ▲3위=서울 휘문고, 대구 경북고
- ▲최우수 선수상=송윤준(복일고 투수)
- ▲우수투수상=윤형배(복일고 투수)
- ▲타격상=전형근(14타수 8안타·타율 0.571·경북고)
- ▲미기상=오준혁(복일고)
- ▲감투상=최현진(충암고)
- ▲수훈상=신준섭(복일고)
- ▲최다 안타상=조영재

- (9안타·충암고) ▲최다타점상=김윤동(6타점·경북고)
- ▲최다 도루상=한덕교(6개·복일고)
- ▲최다홈런상=강태욱(1개·전주고)
- ▲감독상=이정훈(복일고)
- ▲지도상(부장)=고형직(복일고)
- ▲공로상(교장)=신현주(복일고)
- ▲심판상=임현수(광주광역시야구협회 심판위원)
- ▲최회인식선수상=송윤준(복일고)

## KIA 최희섭, 올스타 투표 3주 연속 1위

KIA 최희섭이 프로야구 올스타전 베스트 10 인기투표에서 3주 연속 최다 득표 1위를 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사이트 넷마블(www.netmarble.net)과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모바일, 각 구장에서 진행하는 인기투표 등을 3차 중간 집계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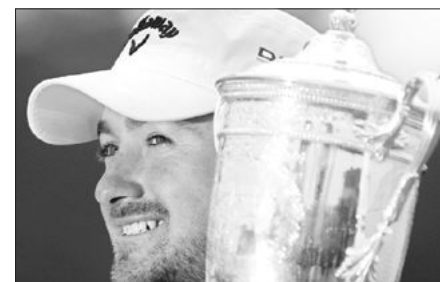
최희섭이 49만5천657표를 받아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웨스턴리그 KIA의 중심타자 최희섭은 최다 득표 2위인 홍성흔(롯데, 49만4천444표)에 1천213표 앞섰다.

작년 챔피언 KIA에서는 최희섭, 안치홍, 이용규 등 3명이 리그 득표 1위를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맥도웰 ‘깜짝 우승’

### US오픈골프...우즈 공동 4위



그레임 맥도웰(북아일랜드 사진)이 제 110회 US오픈골프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맥도웰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들비치 골프링크스(파71.7천4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1개, 보기 4개로 3타를 잃었으나 최종 함께 이븐파 284타로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37위 맥도웰은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이 지난해 PGA 챔피언십 공동 10위였

으나 이번 대회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1970년 토니 재클린(잉글랜드) 이후 40년 만에 이 대회 정상에 오른 유럽 선수가 됐다.

세계 랭킹 1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우즈와 필 미켈슨(미국)은 나란히 공동 4위(3오버파 287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제발**  
멈추기만 해도 행복해요

마이녹실

■ 피이독실 임상결과

정액 4천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02-2554-5555

02-2500-3882